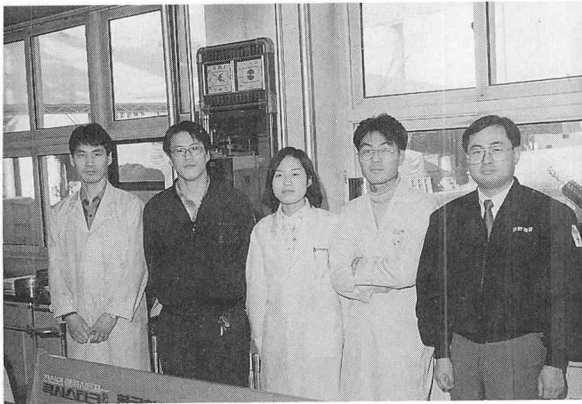


무지개 사료 중앙 연구소를 찾아서

-이 병 석 기자-



병리연구원실
직원들

우로부터
양창근 마케팅팀장,
오화균연구원,
권영희 연구원,
최남규 과장,
최병대 연구원

최근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이 강조됨에 따라 사양가 뿐만 아니라 사료업체, 그리고 약품회사 등이 모두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양가들은 항생제나 설파제의 사용을 규정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하며 과도한 투약으로 인한 유해물질이 돼지고기 내에 잔류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다.

국내돈육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검역기관을 통하여 돈육내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하여 적정한 기준을 통과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전에는 수출물량을 검사하는 기관을 국가에서 전담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업체를 지정하고, 수출업체가 검역을 의뢰하면 신속히 검사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돈육내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기관은 국내에 전체 11개소에 이르며 그 중 우리가 찾아간 곳은 인천시에 있는 대한제당내 무지개 사료 중앙연구소이다.

수출돈육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 기관으로 지정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중앙연

구소는 지난 95년 6월1일에 단일 수출돈육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본격적인 검사업무는 8월부터 시작하였다. 수출 돈육 유해잔류물질 검사절차로는 수출업체에서 수출할 돼지를 생산한 농장명과 돼지 원산지 및 사료급여 사항 등을 첨부하여 검역소에 도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축장에서 그 수출대상 돼지들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는 수출업체 주관하에 양돈 농가별 출하분(1 Lot)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TLC 검사(노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수출불가 판정을 받으며 음성인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단 도축을 하여 지정검사기관(대한제당 중앙연구소)에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를 하게되면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여 약물 함유량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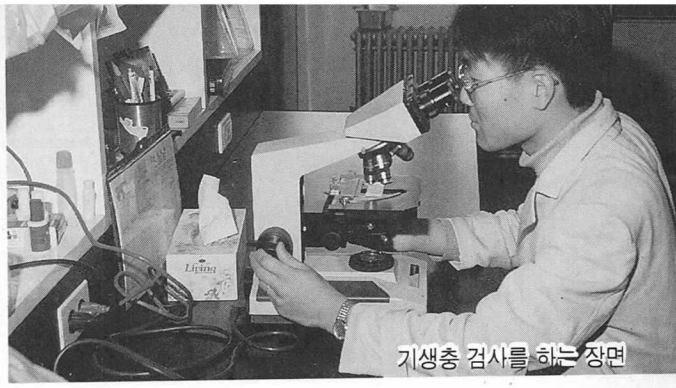
그런 후 검역소에서 확인한 다음 검역증을 발행하게되면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제당 중앙연구소에는 주로 인천, 부천, 강화 등의 지역에서 의뢰가 들어오며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최소 24시간(1박 2일)을 기준으로 검사를 해준다.

검사하는 방법은 HPLC(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량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검사하는 약제는 광범위 항생



혈청검사하는 장면



기생충 검사를 하는 장면

제인 썰파메타진(Sulfamethazine)을 검사해서 (대일수출돈육의 경우 기준치가 썰파메타진 50ppb 이하까지만 가능) 기준치 이하가 되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수출업체에서 대한제당 중앙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려면 시료점당(1콘테이너 기준) 십만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의뢰시료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당 검사 기관에서 보관하며 성적 결과는 의뢰시료에 한하여 보증을 하고 있다.

현재는 한달에 6건 정도가 접수가 되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소의 최남규 과장은 “위생적이고 유해물질이 없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육가들이 규정대로 되어 있는 휴약기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육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사료공장, 약품업체, 사양가에 있어서 서로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제도적인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돼지질병병성감정 써비스 센터인 헬스리더

또한 이곳에서는 헬스리더(Health-Leader)라는 써비스센터를 개설하여 돼지질병병성감정 써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써비스 센터는 1988년 창설 되었으며 농장 질병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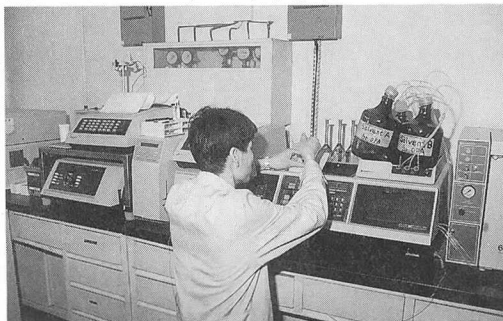
여기서는 농장진단을 해주기 위한 지역별 수의사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해주며, 특정검사를 요하는 것은 중앙연구소로 직접 보내져서 검사가 되어진다.

농장을 진단하는 (1,000두 규모 시 30개의 샘플을 추출) 경우에는 채혈을 하여 항체검사를 하며, 면봉을 코에 넣는 비강채취로 호흡기균을 파악하고, 직장에 넣는 직장채취로 하리균 검사를 한 후 도축장에서는 가검물에서 병변부위를 채취하여 중앙연구소 병리연구실에 보내져 질병감정을 한다.

병리연구실로 보내진 샘플들은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사양가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혈청검사, 세균검사, 약제감수성시험, 기생충 검사 등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 그리고 개선에 관해서 2주 이내에 보고서 형태로 도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장점검은 한 농장당 1년에 2회 실시하며 3년 계획으로 점검을 해주고 1개군당 1농장 정도로 검사를 해 주고 있다.

대한제당 중앙연구소 병리연구실 양창근 부장은 무지개사료를 이용하는 사양가들을 대상으로 써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그 외의 사양가들이 원하면 질병병성감정을 해주고 있으며 사양가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의 써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설파메타진 검사장면